

多音字에 걸친 陽聲韻의 互用에 관한 考察*

이경철**

< Abstract >

On the Nasal Finals Confusing of Multi-Sound Characters in Ancient Chinese

This study explored changes in the syllable structure in Old Chinese by analyzing instances of the alternation of Nasal finals with other finals through multi-sound characters in Ancient Chinese.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1) Word-final Nasals in Language A of Early Old Chinese changed to Vowel u · i · Ø in Language B of Middle Old Chinese.

(2) Early Old Chinese had closed syllables, for example, CaC and C1C2aC1C2. The syllable C1C2aC1C2 in Early Old Chinese changed to an open syllable, such as C1aØ · u · i or C2aØ · u · i in Middle Old Chinese. Therefore, the initial a double consonant can be reconstructed easily, but the final double consonant was difficult to reconstruct.

(3) In Language AB in Middle Old Chinese, which was formed through a contact between Language A and Language B, there existed many sub-language groups such as AB1(C)→AB2(Q · N)→AB3(t · k · n · ŋ)→AB4(p · t · k · m · n · ŋ), according to the word-final consonant. This is also observed in changes in word-final consonants from Ancient Chinese to Modern Chinese as well as in Chinese dialects.

(4) Early Old Chinese had closed syllables wherein many consonants continued, such as CaC or C1C2aC1C2 or C1C2C3aC1C2C3. These syllable structures suggest that meant Early Old Chinese was influenced by some language that was dissimilar to had totally different syllable structures from Chinese.

(5) It is necessary to further study many Altaic languages around China and Old Korean in order to clarify the double consonant syllable system in Early Old Chinese.

Field : Phonology

Keywords : Multi-sound characters, Old Chinese, Nasal finals, Confusing, Syllable syst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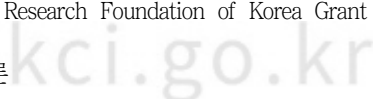
1. 序論

上古音의 音韻體系나 音韻變化에 대한 연구는 그 자료상의 한계나 방대한 시기로 인해 고난의 작업이 될 수밖에 없다. 더구나上古音 연구의 주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詩經』 등의 押韻을 통해 얻을 수 있는上古音의 音韻體系는上古音이라는 오랜 시기의 특정한 한 시기에 불과한 것이다. 이처럼上古音을 연구할 수 있는 자료가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 諧聲聲符나 多音字는上古音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李京哲·吳萊炫(2017)에서는 聲類를 중심으로 多音字의 互用을 유형별로 분석하여上古音의 子音體系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고찰을 통해서上古音에서는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와 有氣·無氣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rant funded by the Korean Government(NRF-2013S1A5A2A03045205)

** 동국대학교(Seoul Campus) 교수, 일본어음운론



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가 각각 따로 존재했었으며, 有聲·無聲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의 有聲音이 有氣·無氣音의 구별체계를 가진 언어에서 有氣音으로 대체되었음을 밝혔으며, 舌音 > 破擦音系 齒音 > 摩擦音系 齒音 > 喻母라는 변화과정과 語頭複數子音이 존재했음을 유추할 수 있었다.

李京哲(2018a, 2018b)에서는 多音字의 互用을 等韻별로 분석하여 上古音의 母音體系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 고찰을 통해서 中古音에 걸친 多音字는 기본적으로 閉音節구조인 전기 上古音 A語의 語末子音이 開音節구조인 중기 上古音 B語에서 u·i·∅로 開音節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며, 중기 上古音은 그 母音數와 母音體系가 다른 B1, B2, B3, B4로 나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인해 이 두 언어의 특성을 모두 갖춘 AB語가 여러 층에 걸쳐 존재했으며, 후기 上古音에서 A語와 B語의 특성이 결합된 C語가 성립되었다고 논하였다.

李京哲(2018c)에서는 多音字에 나타나는 入聲과 陰聲의 互用에 대한 고찰을 통해, 入聲이 陰聲과 互用된 것은 喉內入聲 k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舌內入聲 t였으며, 脣內入聲 p와 陰聲韻의 互用이 가장 적게 출현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入聲과 陰聲의 互用을 통해 CVC구조를 가진 전기 上古音 A語의 語末子音이 CV구조를 가진 중기 上古音의 B語에서 u·i·∅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詩經』에서는 中古音의 入聲韻·陽聲韻·陰聲韻이 서로 押韻되는 例를 찾을 수 있는데, 이를 흔히 陰陽對轉, 陽入對轉, 陰入對轉이라 하고 있다. 이것은 中古音에서 전혀 다른 音인 語末子音과 母音이 上古音의 아주 오래된 어느 단계에서는 같은 音이었으며, 이것이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된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李京哲(2018c)는 陰入對轉에 대한 音韻論의 고찰이라고 할 수 있으며, 본고는 주로 陰入對轉을 통해 上古音의 音韻體系에 대해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洗濯]을 한국한자음에서는 [세탁]리고 하며, 일본한자음에서는 [セタク]라고 한다. 이는 한국한자음과 일본 漢音·漢音의 母胎가 된 中古音에서 [洗]라는 漢字에 [세]의 母胎가 된 音과 [セン]의 母胎가 된 音이라는 두 가지 音이 존재했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母音으로 끝나는 音과 鼻音性 子音으로 끝나는 音이 互用하는 경우를 陰陽對轉이라고 하는 것이다. 원래 하나의 漢字는 하나의 音이 존재하는 것이 당연한데, 어째서 [洗]라는 漢字의 中古音에 [세]의 母胎가 된 音과 [セン]의 母胎가 된 音이라는 두 가지 音이 존재하게 된 것일까?

[龜]이라는 漢字는 한국한자음에서 [龜裂균열], [龜旨歌구지가] [龜船귀선]과 같이 [균], [구], [귀]라는 세 가지 字音으로 읽힌다. 한자음에 대한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라도 [균]에서 [ㄴ]이 脫落하거나 또는 [ㄴ]이 母音 [ㅣ]로 변하는 현상이 언제 어딘가에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몇 가지의 字音을 가진 한자를 多音字라고 하는데, 中古音의 多音字는 당연히 上古音의 音韻狀況을 반영한 것으로, 그 上古音의 흔적을 화석처럼 남기고 있는 것이다. 즉 [洗]의 [세]와 [セン], 그리고 [龜]의 [균]¹⁾과 [구]와 [귀]는 中古音을 반영한 결과이지만, 이는 上古音에서 하나의 音이었던 것이 中古音에 이르는 사이에 어떤 요인에 의해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語末鼻音을 가진 陽聲韻이 다른 요소를 가진 韻과 互用하는 中古音의 多音字를 분석하여 上古音이 어떠한 音節構造를 이루고 있었으며, 어떤 요인에 의해 音節構造에 차이가 있는 것이 서로 互用

1) [龜]의 [균]은 諄韻의 [俱倫切]을 반영한 것인데, 이를 『廣韻』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며, 『集韻』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문헌상으로는 中古音에서 확인할 수 없다. 본고에서는 원칙적으로 中古音을 반영하는 『廣韻』에서 확인할 수 있는 多音字만을 다루었으나, 이처럼 中古音을 반영하는 韓國漢字音이나 일본 漢音과 漢音에서 확인할 수 있는 多音字의 경우, 그것을 중국 韻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에 포함하여 표의 採擇聲韻에 *표시를 하였다. 이는 中古音을 반영하는 『廣韻』에서는 그 字音을 확인할 수 없더라도, 『集韻』 등 이후의 韻書에서 확인할 수는 있는 경우에는 그 字音이 中古音의 韻書에 나타나지 않은 뿐 中古音에 실제로 존재했었을 가능성이 남기 때문이다.

하는 對轉이 발생하게 된 것인지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대상은 平成22年版常用漢字 2,136字에 대해 www.zdic.net(漢典)을 통해 多音字를 추출하고, 다음과 같이 방법으로 多音字의 互用表를 작성하여, 이 중에서 陽聲韻을 포함하는 多音字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 1)表에는 해당 漢字, 韓國漢字音, 吳音, 漢音,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類型을 기재한다.
- 2)이하 中古音은 MC로, 上古音은 OC로, 韓國漢字音은 SK, 日本漢字音은 SJ, 吳音은 SJG, 漢音은 SJK로 약칭한다²⁾.
- 3)SK·SJG·SJK는 아래의 자료에서 그 古形 및 正誤를 확인하고 古形으로 기재하며, 아래의 古文獻에서 확인할 수 없는 字音은 *로 표시한다.

SK: 新增類合, 訓蒙字會, 千字文, 六祖, 眞言·三檀, 翻譯, 小學, 論語, 孟子, 大學, 中庸, 孝經³⁾

SJG: 法華經, 般若經, 新譯華嚴經, 光明眞言, 承曆音義, 類聚名義抄⁴⁾

SJK: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 佛母大孔雀明王經, 文鏡秘府論⁵⁾

- 4)각 漢字에 대한 聲韻의 표기는 MC의 체계에 따르며, 上聲과 去聲은 平聲으로 대표하여 나타내고, 入聲은 그대로 기재한다.
- 5)採擇聲韻에는 SK나 SJ에 반영된 字音의 聲韻을, 捨象聲韻에는 SK와 SJ에 반영되지 않은 字音의 聲韻을 기재한다.
- 6)聲母는 牙·喉·舌·脣·齒音系의 순으로, 동일 音系는 淸·次淸·濁·淸濁의 순으로 정리한다.
- 7)韻母는 1等韻·2等韻·3等韻·4等韻의 순으로, 開口韻·合口韻의 순으로, 陰聲韻·陽聲韻의 순으로 정리한다.
- 8)中古音 내의 音韻變化에 해당하는 重脣音과 輕脣音은 重脣音으로, 舌頭音과 舌上音은 舌頭音으로, 正齒音과 齒上音은 正齒音으로 대표하여 기재한다.
- 9)變化類型에는 陽聲韻과 陰聲韻의 互用을 中古音을 기준으로 기재하며, 等韻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等韻을 함께 기재한다.
- 10)交替類型에는 陽聲韻의 韻尾와 陰聲韻의 母音을 音素로 기재한다.

이하 陽聲韻을 포함하는 多音字에 대해 그 互用을 유형별 제시하고 분석해 가도록 한다.

2. 本論

2.1. 喉內鼻音과 陰聲의 互用

2) MC는 Middle Chinese, OC는 Old Chinese, SK는 Sino-Korean, SJ는 Sino-Japanese, SJG는 Sino-Japanese Go'on, SJK는 Sino-Japanese Kan'on의 약칭에 해당한다. 또한 OC와 AC는 이를 세분할 경우 전기(E: Early), 중기(M: Middle), 후기(L: Late)로 나누어, 그 두문자를 앞에 표기한다.

3) 崔智淳(2014)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4) 宋在漢(2012)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5) 『蒙求』 『群書治要』 『三藏法師傳』 『本朝文粹』는 佐々木勇(2009)의 資料編에 실린 分韻表를, 『佛母大孔雀明王經』은 李京哲(2005), 『文鏡秘府論』은 柏谷嘉弘(1965)의 分韻表를 참조한다.

〈表1〉 喉內鼻音韻과 陰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類型
1耐	내	タイ(慣)		泥哈開1	*泥登開1	$\Lambda i\eta \Leftrightarrow \Lambda i$ $1 \Leftrightarrow 1$	$\eta \Leftrightarrow i (\Leftrightarrow i)$
2等	등		トウ	端登開1	端哈開1	$\Lambda i\eta \Leftrightarrow \Lambda i$ $1 \Leftrightarrow 1$	
3能	능	ノウ		泥登開1	泥哈開1	$\Lambda i\eta \Leftrightarrow \Lambda i$	
4徵	딩	チヨウ		端蒸開3甲		$i\alpha i\eta \Leftrightarrow ii$ $3\text{甲} \Leftrightarrow 3\text{甲}$	$\eta \Leftrightarrow \emptyset (\Leftrightarrow i)$
	티			端之開3甲			
5打	타	夕(慣)		端麻開2	端庚開2 端青開4	$a i\eta \Leftrightarrow e\eta \Leftrightarrow a$ $2 \Leftrightarrow 2 \Leftrightarrow 4$	
6劑	제	ザイ		從齊開4	*端青開4	$e\eta \Leftrightarrow e$ $4 \Leftrightarrow 4$	
7農	농	ノウ		泥冬開1	*泥豪開1	$a u\eta \Leftrightarrow a u$ $1 \Leftrightarrow 1$	
8霧	무	ム		明虞開3乙	*明東開1	$\Lambda u\eta \Leftrightarrow i\alpha u$ $1 \Leftrightarrow 3\text{乙}$	

위의 〈表1〉과 같이 陰陽對轉의 하나로 喉內鼻音韻과 陰聲韻이 互用된 예는 8字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eta \Leftrightarrow i (\Leftrightarrow i)$ 가 4例, $\eta \Leftrightarrow \emptyset (\Leftrightarrow i)$ 가 2例, $\eta \Leftrightarrow \emptyset (\Leftrightarrow u)$ 가 2例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먼저 喉內鼻音 η 은 高位母音에 해당하는 $u \cdot i \cdot \ddot{i}$ 및 \emptyset 와 互用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반적인 音韻變化나 異言語體系에 걸친 借用過程에서 母音 또는 \emptyset 가 子音 η 으로 변화하는 것은 상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OC의 어느 시기에 語末子音 η 이 高位母音으로 交替되거나 또는 脫落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η 이 없었던 CV構造的 SJ에서 AC의 η 을 母音 u 나 i 로 수용한 것과 유사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여기에서 語末子音 η 을 가지고 있는 閉音節구조의 언어와 語末子音 η 이 없는 開音節구조의 언어가 OC에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앞으로 전자에 해당하는 閉音節구조의 언어를 A語, 후자에 해당하는 開音節구조의 언어를 B語라고 칭하기로 한다. 여기에서 A語의 語末子音 η 이 B語에서 $u \cdot i \cdot \ddot{i} \cdot \emptyset$ 으로 변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A語가 B語보다 앞선 시기에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⁶⁾. 따라서 앞으로 A語의 시기를 EOC, B語의 시기를 MOC로 간주한다. 이를 도식화하면 $A[V\eta] \Rightarrow B[Vu \cdot i \cdot \ddot{i} \cdot \emptyset]$ 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eta \Leftrightarrow i (\Leftrightarrow i)$ 부터 살펴보자.

[1耐][2等][3能]은 $\Lambda i\eta \Leftrightarrow \Lambda i$ 의 互用に 해당한다. 먼저 EOC의 A語에는 a 만이 존재하였으며 Λ 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互用은 a 가 Λ 로 변하기까지의 과정을 도출해야 한다. 李京哲(2018a)에서는 MOC의 B語를 $[a \cdot u \cdot i]$ 3母音體系의 B1, $[a \cdot a \cdot u \cdot i]$ 4母音體系의 B2, $[a \cdot \Lambda \cdot a \cdot e \cdot u \cdot i \cdot \ddot{i}]$ 7母音體系의 B3, $[a \cdot \Lambda \cdot o \cdot a \cdot e \cdot \ddot{e} \cdot u \cdot i \cdot \ddot{i}]$ 10母音體系의 B4로 분류하였다. 여기에 대입하여 본다면 Λi 는 $A[a\eta] \Rightarrow B1[ai] \Rightarrow B2[ai] \Rightarrow B3\Lambda i$ 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AC의 Λi 는 閉音節구조인 EOC의 A語 $a\eta$ 이 開音節구조인 MOC의 B1語에서 ai 로 대체된다. 이 B1語의 ai 가 B2에서는 後舌母音 a 와 前舌母音 i 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ai 와 ai 로 나뉠 수 있다. B3에서는 後舌低位母音 a ·後舌中位母音 Λ ·前舌低位

6) 이는 入聲韻과 陰聲韻의 互用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李京哲(2018c)를 참조하기 바란다.

7) B1語의 a 는 後舌低位母音이 아니라 前舌과 後舌, 低位와 中位の 구별이 없는 $a[-\text{Back}/-\text{low}]$ 에 해당한다.

母音 a · 前舌中位母音 e의 구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ai · li · ai · ei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liŋ은 A[an]⇒B1[ai]⇒B2[ai]⇒B3[li]⇒li⇒AB3liŋ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B3에서 母音 i가 추가된 것은 a · ʌ · a · e의 구별이 존재하는 MAC에서 3等甲乙類가 i와 i로 구별하고 있기 때문에 ʌ · e가 존재하는 OC의 단계에 i가 존재했다고 보기 때문이다⁸⁾. 즉 B3에서 li와 li가 분리된다. 또한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도 그 母音體系와 子音素에 따라 AB1, AB2, AB3, AB4로 나눌 수 있는데, liŋ은 B3에서 li가 형성된 다음에야 비로써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를 AB3에서 형성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4徵]은 iaiŋ⇒ii의 互用으로, 먼저 iaiŋ은 A[an]⇒B1[ai→iai]⇒B3[li→i-li]⇒B4[i-ai]⇒AB4iaiŋ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B3의 i-li→i-li에서 高位母音 사이에 끼인 ʌ가 더욱 高位化하여 B4에서는 i-ai와 같이 ə가 音素로 독립하게 된다. 또한 ii는 A[an]⇒B1[ai→iai]⇒B3[li]⇒B4[i-ai]⇒ii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高位化의 결과로 인해 결국 B4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高位母音 사에서 i-li→i-ai→ii와 같이 主母音이 脫落하게 되는 것이다.

이어서 ŋ⇌∅(⇌i)를 살펴보자.

[5打]는 aiŋ⇌eŋ⇌a의 互用으로, 각각 A[an]⇒B1[ai]⇒B2[ai]⇒AB2aiŋ, A[an]⇒B1[ai]⇒B2[ai]⇒B3[ai·ei]⇒B4[e]⇒AB4eŋ, A[an]⇒B1[∅]⇒B2a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B3의 ai · li · ai · ei나 ia · i · ia · ie가 單母音化하여 B4에서는 e가 音素로 독립하게 되는 것이다.

[6劑]는 eŋ⇌e의 互用으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脫落으로 보이지만, 여기에는 A[an]⇒B1[ai]⇒B2[ai·ai·ia·ia]⇒B3[ai·li·ai·ei·ia·i·ia·ie]⇒B4e⇒AB4eŋ이라는 과정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ŋ⇌∅(⇌u)를 살펴보자.

[7農]은 auŋ⇌au의 互用으로, 이 역시 표면상으로는 단순한 脫落으로 보이지만, 이 역시 A[an]⇒B1au⇒AB1auŋ라는 과정이 內在되어 있는 것이다.

[8霧]는 ʌuŋ⇌iu의 互用으로, 각각 A[an]⇒B1[au]⇒B2[au]⇒B3[ʌu]⇒AB3ʌuŋ, A[an]⇒B1[au→iau]⇒B3[iʌu→iʌu]⇒B4[i-ʌu]⇒iu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B3에서 i가 추가되므로, 그 介音에도 i와 ui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EOC의 A語 an은 MOC의 B語에서 u · i · i 라는 高位母音으로 代替되었으며, 일부는 脫落되었다고 볼 수 있다.

조사대상의 多音字에 한해서 본다면, EOC의 an에서 유래한 AC의 陰聲韻은 [哈開1li, 之開3甲ii, 麻開2a, 齊開4e, 豪開1au, 虞開3乙iəu]에 해당한다. 여기에서 [哈開1li, 之開3甲ii, 麻開2a, 豪開1au, 虞開3乙iəu]은 ak에서 유래한 韻과 [齊開4e]는 at에서 유래한 韻과 겹치며, [之開3甲ii]은 ak과 at에서 유래한 韻이 모두 겹친다. 즉 喉內鼻音 an에서 유래한 AC의 陰聲韻은 대부분 ak에서 유래한 韻에 포함되기 때문에 OC의 ak과 동일한 변화과정을 거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之開3甲ii]과 [齊開4e]와 같이 at에서 유래한 韻과 겹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OC를 그 主母音의 유사성으로 入聲 · 陽聲 · 陰聲의 패어를 몇 개의 部로 나눈 제 학설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한 EOC의 A語 an에서 변화된 것이 ak에서 변화된 것보다 그 例가 훨씬 적다. 이는 閉音節構造의 A語와 開音節構造의 B語의 접촉으로 C語가 성립되는 과정에 존재했던 AB1 · AB2 · AB3 · AB4에서 語末鼻

8) 따라서 i가 존재하지 않았던 B1과 B2에서는 介音도 i · u · ui뿐이었으며, B3에서 介音에 i · ui가 추가된다.

音 η 이 語末無聲子音 k보다 일찍이 音素로서 성립하여 高位母音으로의 交替가 k에 비해 현저히 적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2.2. 舌內鼻音과 陰聲의 互用

〈表2〉 舌內鼻音韻과 陰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類型
1母	모		ボ	明侯開1	*見桓合1	uan \leftrightarrow əu 1 \leftrightarrow 1 開 \leftrightarrow 合	n \leftrightarrow u
2龜	귀	クキ		見脂合3乙		uiəiŋ \leftrightarrow uiəi \leftrightarrow iu	n \leftrightarrow i \leftrightarrow u(\leftrightarrow ĩ)
	구			見尤開3乙		3甲 \leftrightarrow 3乙 \leftrightarrow 3乙	
	균			*9)見諄合3甲		開 \leftrightarrow 合	
3卯	란	ラン		來桓合1	來戈合1	uan \leftrightarrow ua 1 \leftrightarrow 1	n \leftrightarrow ∅
4獻	헌		ケン	曉元開3	心歌開1	ĩen \leftrightarrow a 1 \leftrightarrow 3乙	
5番	번	バン		竝元合3	竝桓合1	uan \leftrightarrow uien \leftrightarrow ua	
	반			滂元合3	幫戈合1	1 \leftrightarrow 3乙 \leftrightarrow 1	
6繁	번		ハン	竝元合3	竝桓合1 竝戈合1	uan \leftrightarrow uien \leftrightarrow ua 1 \leftrightarrow 3 \leftrightarrow 1乙	
7閉	폐	ヘイ		幫齊開4	幫先開4	en \leftrightarrow e 4 \leftrightarrow 4	n \leftrightarrow ∅ \leftrightarrow i
8洗	션	セン		心先開4		en \leftrightarrow e	
	세			心齊開4		4 \leftrightarrow 4	

위의 〈表2〉과 같이 陰陽對轉의 하나로 舌內鼻音韻과 陰聲韻이 互用된 例는 9字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n \leftrightarrow u가 2例, n \leftrightarrow u \leftrightarrow i(\leftrightarrow ĩ)가 1例, n \leftrightarrow ∅가 4例, n \leftrightarrow ∅ \leftrightarrow i가 2例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舌內鼻音 n도 高位母音에 해당하는 u·i·ĩ 및 ∅와 互用을 이루고 있으므로, 앞서의 語末鼻音 η 과 마찬가지로 EOC의 語末鼻音 n이 MOC에서 u·i·ĩ로 代替되거나 탈락했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도식화하면 A[CVn] \Rightarrow B[CVu·CVi·CVĩ·CV∅]로 나타낼 수 있다.

먼저 n \leftrightarrow u부터 살펴보자.

[1母]는 uan \leftrightarrow əu의 互用으로, 각각 A[an] \Rightarrow B1[a∅ \rightarrow ua] \Rightarrow AB1uan, A[an] \Rightarrow B1[au] \rightarrow B3[Lu] \rightarrow B4əu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A語의 CVC가 B1에서 Cau·Cai·Ca∅로 변하기 때문에 B1은 a·i·u라는 3母音體系로 볼 수 있으며, 그 介音에도 i와 u가 있어, [i·u+a+i·u]라는 音節구조를 이루게 된 것이다. 이러한 [介音+主母音+介音]이라는 音韻構造는 MOC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漢語의 독특한 음운구조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EOC A語의 CaC는 B1에서 Ca·Cai·Cau·Cia·Ciai·Ciau·Cua·Cuai·Cuau라는 9가지나 되는 音節로 그 音節이 크게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이다. 여기에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에서는 이 9가지 音節에 語末子音이 결합될 수 있는 音節構造를 가지게 된 것으로

9) 표에서 *표시는 『廣韻』에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中古音을 반영하는 韓國漢字音이나 일본 吳音과 漢音에서 그 陽聲韻에 해당하는 字音을 확인할 수 있는 多音字로서, 『集韻』 등 中 國 韻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판단된다. B1의 $a\emptyset \rightarrow ua$ 와 AB1의 uan 은 이러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어서 $n \leftrightarrow u \leftrightarrow i (\leftrightarrow \ddot{i})$ 를 살펴보자.

[2龜]는 $ui\ddot{a}in \leftrightarrow ui\ddot{a}i \leftrightarrow i\ddot{u}$ 의 互用으로, 각각 $A[an] \rightarrow B1[ai \rightarrow uiai] \rightarrow B2[ui\ddot{a}i] \rightarrow B3[ui\ddot{a}i] \rightarrow B4[ui\ddot{a}i] \rightarrow AB4ui\ddot{a}in$, $A[an] \rightarrow B1[ai \rightarrow uiai] \rightarrow B2[ui\ddot{a}i] \rightarrow B3[ui\ddot{a}i] \rightarrow B4ui\ddot{a}i$, $A[an] \rightarrow B1[au \rightarrow iau] \rightarrow B3[i\ddot{a}u] \rightarrow B4[i\ddot{a}u] \rightarrow i\ddot{u}$ 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多音字를 통해서 開口와 撮口의 수많은 互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主母音 앞에 B1·B2에서는 $i \cdot u$ 가 B3·B4에서는 $i \cdot \ddot{i} \cdot u \cdot \ddot{u}$ 가 올 수 있는 漢語의 독특한 音節構造로 인해 그 音節數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開口1等 歌韻의 [多]는 MAC에 ta 이었던 것이 현대 北京音에서는 tuo 로 변했는데, 여기에서 $ta \rightarrow tua \rightarrow tuo$ 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ta 에 介音 u 가 들어가 撮口の tua 가 되었으며, 그 tua 에서 a 가 前接 u 의 영향으로 高位圓脣化하여 tuo 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開口2等 麻韻의 [家]는 MAC에 ka 이었던 것이 현대 北京音에서는 $jia \cdot jie$ 로 변했는데, 여기에서 $ka \rightarrow kia \rightarrow jia \rightarrow jie$ 의 과정을 도출할 수 있다. 즉 ka 에 介音 i 가 들어가 kia 가 되었으며, 前接 i 母音의 영향으로 口蓋音化하여 jia 가 되었으며, 後接 前接 i 母音의 영향으로 a 가 e 로 前舌化하여 jie 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AC 이후에도 主母音이 스스로 그 앞에 i 나 u 를 첨가하는 母音分裂 현상이 漢語史를 통해 끊임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互用的 첫 번째 원인은 閉音節구조인 A語가 閉音節구조의 B語에서 閉音節화함에 기인하는데, 그 두 번째 원인은 바로 漢語의 [介音+主母音+介音]이라는 音韻構造로 인한 音節數의 증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n \leftrightarrow \emptyset$ 를 살펴보자.

[3冎]는 $uan \leftrightarrow ua$ 의 互用으로, 표면적으로는 $uan \rightarrow ua$ 라는 語末子音의 脫落으로 보이지만, $A[an] \rightarrow B1[a] \rightarrow ua \rightarrow AB1uan$ 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4獻]은 $\ddot{i}en \leftrightarrow a$ 의 互用으로, 이는 $A[an] \rightarrow B1a$, $A[an] \rightarrow B1[a \rightarrow ia] \rightarrow B2[ia] \rightarrow B3[i\ddot{e}] \rightarrow AB3\ddot{i}en$ 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5番][6繁]도 [3冎][4獻]과 유사한 과정을 상정할 수 있다.

이어서 $n \leftrightarrow \emptyset \leftrightarrow i$ 를 살펴보자.

[7開][8洗]은 $en \leftrightarrow e$ 의 互用으로 표면상으로는 $n \rightarrow \emptyset$ 로 보이지만, $A[an] \rightarrow B1[ai] \rightarrow B2[ai] \rightarrow B3[ai] \rightarrow B4e$, $A[an] \rightarrow B1[ai] \rightarrow B2[ai] \rightarrow B3[ai] \rightarrow B4[e] \rightarrow AB4en$ 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변화과정의 도식에서는 B2[ai]와 B3[ai]로만 간략하게 나타냈지만, 이는 B2[ai·ai] \rightarrow B3[ai·ai· Λ ·ei]와 B2[ia·ia] \rightarrow B3[ia·ia·i Λ ·ie]가 모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EOC A語 an 은 MOC의 B語에서 高位母音 $u \cdot i \cdot \ddot{i}$ 로 代替되거나 脫落했다고 볼 수 있다. 현대 중국 閩方言에서는 AC의 舌內鼻音韻尾 n 이 주로 母音 i 로 변해 있으며, [埋man/mai]나 [還huan/hai]와 같이 현대 北京音에서도 n 과 i 의 互用이 발견된다. 이는 OC와 공통되는 현상으로, 이처럼 동일한 현상이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동일한 音韻構造를 가진 언어체계가 共時的으로도 通時的으로도 존재했다는 증거가 된다.

조사대상의 多音字를 통해서 보면, EOC의 an 에서 유래한 AC의 陰聲韻은 [侯開1 $\ddot{a}u$, 模開1 $\ddot{a}u$, 尤開3 \ddot{u} , 脂合3 $\ddot{u}\ddot{a}i$, 戈合1 \ddot{a} , 歌開1 \ddot{a} , 齊開4]에 해당한다. 그런데 an 에서 유래한 陰聲韻은 at 에서 유래한 陰聲韻과 脣音을 이루지 않는다. 오히려 [侯開1 $\ddot{a}u$, 模開1 $\ddot{a}u$, 脂合3 $\ddot{u}\ddot{a}i$, 戈合1 \ddot{a} , 歌開1 \ddot{a}]는 EOC의 ak 에

서 代替된 것보다 AC에서 같은 韻을 이루고 있는 것이 가장 많으며, [尤開3乙iu]은 at·ak에서 유래한 韻과 [齊開4]는 an·at·aq에서 유래한 韻과도 겹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 OC를 몇 개의 部로 나누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齊開4]는 EOC의 an·at·aq에서 유래하는데, 이를 OC에서 어느 部에 속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詩經』 등 OC의 音韻資料를 통해서 얻을 수 있었던 互用은 위와 같은 OC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互用 중에서 나타나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으며, OC나 AC의 韻書에도 들어나지 않는 A1에서 A4, 그리고 AB1에서 AB4에 이르는 音韻構造의 차이에 의한 수많은 代替와 變化의 과정이 숨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OC의 音韻體系는 단일 체계가 아닌 서로 다른 체계의 여러 언어가 접촉한 흔적이므로, 먼저 이들 다른 언어체계를 音韻構造의 차이에 따라 큰 그룹으로 묶어 그 전후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앞으로 OC의 音韻體系에 대한 연구는 이와 같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2.3. 脣內鼻音韻字와 陰聲韻

〈表3〉 脣內鼻音韻과 陰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類型
1吹	츄	スイ		穿支合3甲	*穿侵開3乙	iəim↔uiɿi 3乙↔3甲 開↔合	m↔i(↔i)

위의 〈表3〉과 같이 陰陽對轉의 하나로 脣內鼻音韻과 陰聲韻이 互用된 예는 1字뿐으로, m↔i(↔i)에 해당한다.

[1吹]는 iəim↔uiɿi의 互用으로, 이 역시 EOC의 語末子音 m을 MOC에서 開音節化하여 高位母音으로 수용했다고 볼 수 있다. 즉 A[am]⇒B1[ai→iɿi]→B3[iɿi]→B4[iəi]⇒AB4iəim, A[am]⇒B1[ai→uiɿi]→B3uiɿi 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대 중국방언의 上海語에서는 AC의 脣內鼻音韻尾 m이 주로 u로 변해 있는 것¹⁰⁾으로 보아 EOC의 語末子音 m도 MOC에서 開音節化하여 高位母音 u·i·i 모두 출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語末脣音 p와 m이 脫落 또는 母音으로 交替된 예가 語末喉音 k와 ŋ, 語末舌音 t와 n의 互用例보다 훨씬 그 수가 적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閉音節構造의 A語와 開音節構造의 B語의 접촉으로 C語가 성립되는 과정에 존재했던 AB1·AB2·AB3·AB4에서 語末子音 p가 k나 t에 비해 音素로서 성립하기 어려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10) AC의 脣內鼻音韻尾 m이 潮州語·客家語·廣東語에서는 m을 유지하고 있지만, 北京語에서는 n으로, 上海語에서는 u로 변해 있다. 예를 들어 [感]이 潮州語·客家語·廣東語에서는 gam, 北京語에서는 gan으로, 上海語에서는 geu이다. 中國語方言字音データベース(www.gattin.world.cocan.jp) 검색일 2018. 5. 20.

2.4. 陽聲과 入聲의 互用

〈表4〉 陽聲韻과 入聲韻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類型
1 柵	책		サク	穿麥開2	穿陌開3 審刪開2	eik↔aik↔an 2↔3甲↔2	k↔n(↔i)
2 咽	인	エン	エン		影先開4 影屑開4	en↔et 4↔4	n↔t

위의 〈表4〉와 같이 陽入對轉의 하나로 陽聲韻과 入聲韻이 互用된 예는 2字뿐이다.

[1柵]은 eik↔aik↔an의 互用으로, 여기에서 k↔n이나 n↔k라는 변화는 상정하기 어렵다. 즉 먼저 EOC의 이른 시기까지 ank이었던 것이 먼저 an과 ak으로 분리되었으며, A[an]→B1[a]→B2[a]→AB2an, A[ak]→B1[ai]→B2[ai]→AB2aik, A[ak]→B1[ai]→B2[ai]→B3[ei]→AB3eik이라는 과정이 內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그 예가 적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지만, EOC에서 중앙어의 위치를 점했던 CVC의 언어체계가 CVCC 또는 CCVC, CCVCC와 같이 語頭뿐만 아니라 語末에도 複數子音이 존재할 수 있는 언어체계였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2咽]은 en↔et의 互用으로, n↔t의 交替는 CVC構造의 A語와 CV構造의 B語의 접촉으로 C語가 성립되는 과정에 존재했던 AB1·AB2·AB3·AB4에서 語末無聲子音 p·t·k와 語末鼻音 m·n·ŋ을 구별하지 못하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앞서 제시한 AB1(C)에 해당하는 것으로, 語末子音을 구별하여 인지하지 못하지만 語末子音을 하나의 子音音素로 인식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위의 예에서는 어말 複數子音의 흔적을 nk와 nt 2예밖에 확인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제 연구자들에 의해 語頭複數子音에 대해서는 수많은 흔적을 엿볼 수 있었다. 이는 EOC의 C1C2aC1C2라는 音節構造가 B1에서 C1a∅·u·i나 C2a∅·u·i로 開音節化했기 때문에, B1의 語頭에서는 C1과 C2로 EOC의 語頭子音을 확인할 수 있지만, B1의 語末에서는 開音節化로 그 모습을 감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예를 들어 AC의 風 pɾɿɿ과 嵐ɿɿm을 통해 EOC의 plam을 再構할 수 있으며, AC의 落ɿak·各kak·路ɿɿ를 통해 EOC의 klak을 再構할 수 있다. [風][嵐]은 각각 A[plam]→B1[ɿa]→B2[ɿa]→B3[ɿɿ]→AB3ɿɿm과 A[plam]→B1[pau]→B2[pau]→B3[pɿɿ]→AB3pɿɿ이라는 과정을 도출할 수 있으며, [落][各][路]은 A[klak]→B1[ɿa]→AB1ɿak, A[klak]→B1[kɿa]→AB1kɿak, A[klak]→B1[ɿau]→B2[ɿau]→B3[ɿɿ]를 상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AC의 語頭子音에 C1과 C2가 별개로 남아 있어 EOC의 C1C2라는 複數子音은 쉽게 재구할 수 있다. 단지 EOC의 C1C2가 예를 들어 pi이었는지 ip이었는지 또한 lk이었는지 kl이었는지는 EOC의 複數子音體系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에서도 語末子音이 AB1(C)→AB2(Q·N)→AB3(t·k·n·ŋ)→AB4(p·t·k·m·n·ŋ)라는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기 때문에 A語의 語末 C1C2는 최종적으로 AB4에서 p·t·k·m·n·ŋ로만 정착되었기 때문에 A語의 語末 C1C2가 EOC 또는 그 이전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音素이었던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위의 예에서 [風]은 AB3에 語末子音 m이 音素로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m \rightarrow \eta$ 의 交替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語頭・語末複數子音은 다시 A語의 단계를 세분화시킬 수 있으며, 漢語의 계통에 중축을 이루는 B語와는 전혀 다른 音節構造에 해당한다. 현대한국어에도 [값, 흙, 삶, 양다, 싫다, 없다] 등과 같이 현재 발음에서는 대부분 單子音으로 변해 있지만, 많은 複數語末子音을 남기고 있으며, 朝鮮時代까지도 [빨, 싸]와 같이 語頭複數子音도 유지하고 있었다. 多音字에 걸친 語頭・語末複數子音의 흔적은 EOC가 알타이어 또는 고대한국어와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위에서 예를 든 [風嵐plam]은 현대한국어의 [바람, 불다]와 관련이 있으며, [洛各路klak]은 현대한국어의 [길, 그리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단순히 名詞에만 그 借用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動詞에도 남아 있다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더욱 중요한 점은 이러한 예들이 OC의 영향으로 고대한국어에 借用된 것이 아니라 알타이어의 유파 또는 고대한국어의 영향으로 OC에서 借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이다. EOC는 그 음운체계상 漢語로 보기 어려우며, MOC 부터가 漢語의 祖系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OC를 알타이어 또는 고대한국어와 관련짓는 연구로 辛容泰(1982, 1984, 1986, 1988), 오세준(2011, 2017), 金泰慶(2013, 2016) 등의 연구는 주목할 만하며, EOC의 語末CC를 구체적으로 밝히기 위해서는 몽고어·한국어·터키어를 비롯한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 그리고 일본어를 포함해서 중국 주변의 제 언어와 EOC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2.5. 다른 陽聲韻끼리의 互用

〈表5〉 陽聲韻끼리의 互用

漢字	SK	SJG	SJK	採擇聲韻	捨象聲韻	變化形態	交替類型
1平	평	ビョウ	へイ	竝庚開3	竝仙合3乙	uiaŋ ⇌ uian 3乙 ⇌ 3乙 開 ⇌ 合	ŋ ⇌ n
2延	연	エン		喻仙開3甲	*照清開3	ieŋ ⇌ ian 3甲 ⇌ 3甲	
3認	인	ニン		日眞開3甲	日蒸開3甲	iəŋ ⇌ iein 3甲 ⇌ 3甲	
4令	령		レイ	來清開3	來青開4 來仙開3甲	ieŋ ⇌ eŋ ⇌ ian 3甲 ⇌ 4	
5町	딩	チヤウ		透青開4	定青開4 透先開4	eŋ ⇌ en 4 ⇌ 4	
6零	령		レイ	來青開4	來先開4	eŋ ⇌ en 4 ⇌ 4	
7鑑	감		カム	見銜開2	見桓合1	am ⇌ uan 2 ⇌ 1 開 ⇌ 合	m ⇌ n
8汎	범		ハム	滂凡合3	竝東開3乙	iem ⇌ iAuŋ 3乙 ⇌ 3乙	m ⇌ ŋ

위의 〈表5〉와 같이 陽聲韻끼리 互用된 예는 8字에 해당한다. 이 중에서 $\eta \rightleftharpoons n$ 의 互用이 6例에 해당하며, $m \rightleftharpoons n$ 의 互用과 $m \rightleftharpoons \eta$ 의 互用이 각각 1例에 해당한다.

$\eta \rightleftharpoons n$ 의 互用에는 [1平uiaŋ ⇌ uian], [2延ieŋ ⇌ ian], [3認iəŋ ⇌ iein], [4令ieŋ ⇌ eŋ ⇌ ian], [5町eŋ ⇌

en]이 해당되는데, [1平uiain↔uiān], [4令ieiη↔eiηian], [5𠵼Teη↔en], [6零eη↔en]은 [1平·評·坪], [4令·6零·鈴·領], [5𠵼·丁·頂] 등과 같이 동일 聲符字가 모두 η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η→n으로의 변화로 보이며, [2延ieiη↔ian]과 [3認ieiη↔iein]은 [涎·挺·筵]과 [忍·刃·韌] 등 동일 聲符字가 모두 n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n→η으로의 변화로 보인다.

이는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의 한 단계에 n과 η의 구별이 없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AB2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대 潮州語와 臺灣語에서는 AC의 n이 대부분 η으로 변해 있는데, 이와 유사한 語末子音體系를 가진 언어집단이 MOC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AB2에 해당하는 것이다.

m↔n의 互用은 [7鑑am↔uan]이 해당되는데, [7鑑·籃·艦]과 같이 동일 聲符字가 모두 m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m→n으로의 변화로 보인다. 이를 통해 AB語의 한 단계에 m과 n의 구별이 없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AB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J에서 脣內鼻音韻尾 m을 ㄹ로, 舌內鼻音韻尾 n을 ㄴ으로 구별해서 반영하였다가 결국 撥音 ㄴ/ㄹ으로 정착된 것과 유사한 경향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C의 語末子音 m은 北京語에서는 모두 n으로 변하였는데, 이와 유사한 語末子音體系를 가진 언어집단이 MOC에도 존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그것이 AB3에 해당하는 것이다.

m↔η의 互用은 [8汎iem↔iληη]이 해당되는데, [8汎·凡·帆]과 같이 동일 聲符字가 모두 m을 가지고 있는 점으로 보아 m→η으로의 변화로 보인다. 이 역시 AB語의 한 단계에 m과 η의 구별이 없는 언어체계가 존재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앞서 제시한 AB3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陽聲韻끼리 互用은 AC 이후에 변화된 현대 중국어음의 현상과 유사한 면을 엿볼 수 있다. 현대 중국방언을 보면, AC의 語末子音 η은 대부분의 방언에서 유지되고 있지만, n·m은 여러 방언에서 차이를 보인다. AC의 語末子音 m은 北京語에서는 n으로, 上海語에서는 母音 u로 변했으며, 潮州語, 客家語·廣東語·臺灣語는 m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또한 AC의 語末子音 n도 上海語에서는 주로 前舌母音으로 변해 있으며, 潮州語와 臺灣語에서는 η과 구분이 없는 형태가 상당수 보인다. 또한 현대 北京音에서도 [親qin/qing]과 같은 n→η의 交替와 [稱cheng/chen]과 같은 η→n의 交替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대 중국방언의 여러 가지 모습은 MOC에서도 유사한 상황을 가정할 수 있게 한다. 즉 MOC의 B語는 開音節構造이었기 때문에 B1에서는 EOC A語의 n·m·η을 모두 u·i·i 라는 高位母音으로 代替하든지 脫落시켰지만, A語와 B語가 言語接觸으로 서로 영향을 주어 형성되어 갔던 AB에서는 이들 n·m·η가 하나의 音素 N으로 새롭게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며, 현대 중국어처럼 n·η이라는 두 音素만 생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집단에 따라 그 音素의 종류와 시기가 달랐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AB語에 AB1(C)→AB2(Q·N)→AB3(t·k·n·η)→AB4(p·t·k·m·n·η)라는 각각의 언어집단이 존재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러한 언어집단이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3. 結論

본고에서는 中古音 多音字 중에서 陽聲韻이 다른 陰聲韻이나 入聲韻 또는 서로 다른 陽聲韻끼리 互用하는 用例를 분석하여, OC 내에서 어떤 音節構造의 변화가 있었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陽聲이 陰聲과 互用된 것은 喉內鼻音 η 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舌內鼻音 n 이었으며, 脣內鼻音과 陰聲韻의 互用이 가장 적었다. 陽聲과 陰聲의 互用을 통해 CVC구조를 가진 EOC A語의 語末鼻音이 CV구조를 가진 MOC의 B語에서 $u \cdot i \cdot \emptyset$ 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A[CaC] \Rightarrow B1[Cau \cdot i \cdot \emptyset]$ 이라는 도식이 성립한다.

2) EOC의 A語는 CaC 또는 C1C2aC1C2와 같은 音節構造를 가지고 있었다. EOC의 C1C2aC1C2라는 音節構造가 B1에서 C1a $\emptyset \cdot u \cdot i$ 나 C2a $\emptyset \cdot u \cdot i$ 로 開音節化한다. 따라서 語頭の 複數子音은 再構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지만, 語末의 複數子音은 再構하기가 어렵다.

3) A語와 B語의 言語接觸으로 형성된 MOC의 AB語에 $AB1(C) \rightarrow AB2(Q \cdot N) \rightarrow AB3(t \cdot k \cdot n \cdot \eta) \rightarrow AB4(p \cdot t \cdot k \cdot m \cdot n \cdot \eta)$ 라는 각각의 언어집단이 존재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AC에서 현대에 걸친 중국어 語末子音의 변화나 현대 중국어의 방언을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4) EOC의 A語는 CaC라는 音節構造보다 C1C2aC1C2 또는 C1C2C3aC1C2C3와 같은 子音의 연속이 보다 많을 수 있는 音節構造였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音節構造는 漢語와 전혀 다른 音節構造를 가진 다른 系統의 언어가 漢語의 音韻과 語彙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5) EOC의 音節構造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중국 주변에 분포하는 알타이어족의 제 언어나 고대한국어의 音韻體系 및 音節構造에 대한 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參考文獻】

- 김정빈(2007) 「安田八幡宮藏大般若波羅蜜多經分紐分韻表」 『일본오음연구』 책사랑 pp.485-496
- 김지형(2001) 『한자 전래 이전 시기의 韓國語와 中國語와의 比較』 박이정 pp.100-259
- 金泰慶(2013) 「음성은 자음운미설로 본 일부 한국어 어휘의 어원」 『中國語文學論集』 79 中國語文學硏究會 pp.224-300.
- _____ (2016) 「상고중국어 음운체계와 한국어 어휘의 어원」 學古房 pp.65-138
- 변지원(2016) 「시기별 중국어 상고음 연구 원리와 의의」 『中國文學』 87 韓國中國文學會 pp.115-136
- 宋在漢(2012) 『日本 吳音의 韻類體系 硏究』 東國大學校 博士論文 pp.14-231
- 辛容泰(1982) 「韓國語·日本語·中國語 上古音의 比較硏究-韓·日·中國語의 共通祖語를 探索하는 一試論-」 『語文硏究』 10 韓國語文敎育硏究會 pp.66-90
- _____ (1984) 「三國史記地名의 解讀法硏究-韓國語·日本語·中國語(殷語)의 共通祖語를 探索하는 一試論-」 『日本學』 4 東國大學校 日本學硏究所 pp.77-107
- _____ (1986b) 「韓國語·日本語의 語源硏究[III]-韓·日·殷(商)어의 脈絡을 探索-」 『日語日文學硏究』 8 韓國日語日文學會 pp.241-265
- _____ (1988) 『原始韓日語의 硏究』 동국대학교 출판부 pp.3-282
- 嚴翼相(1998) 「多音漢字의 中國音韻學的 分析」 『中國語文學論集』 第10號, 中國語文學硏究會 pp.381-425

- 오세준(2011) 「“漢·阿準同源詞”中的原音對比」 『中國言語研究』 37 韓國中國言語學會 pp.19-55
- _____ (2017) 「關聲系 轉注에서 본 上古漢語와 韓國固有語의 對應」 『中國學報』 79 韓國中國學會 pp.177-200
- 李京哲(2005) 『佛母大孔雀明王經 字音研究』 책사랑 pp.172-274
- _____ (2018a) 「中古音 多音字의 互用에 관한 고찰-1·2等韻을 중심으로-」 『日本學』 55 檀國大學校 日本研究所 pp.353-384
- _____ (2018b) 「中古音 多音字의 互用에 관한 고찰-3·4等韻을 중심으로-」 『日本學報』 116 韓國日本學會 pp.45-63
- _____ (2018c) 「多音字에 나타나는 入聲과 陰聲의 互用에 관한 고찰」 『比較日本學』 43 漢陽大學校 日本學國際比較研究所 pp.417-431
- 李京哲·吳萊炫(2017), 「中古音 多音字의 類型에 대한 고찰-聲類를 중심으로-」 54 韓國日本語學會 pp.169-188
- 李敦柱(1995) 『漢字音韻學의 理解』 탑출판사 pp.250-269
- 李海雨(2000) 「中國語 上古音 二等 介音 [-r-]의 再構」 『中國語文學論集』 13 中國語文學研究會 pp.107-124
- 전광진(1996) 「상고음의 음운변화-이화작용-」 『中語中文學』 第十輯, 韓國中語中文學會 pp.557-578
- 崔玲愛(2007) 「詩經 國風 聯綿詞의 음운연구」 『中語中文學』 제41집, 韓國中語中文學會 pp.151-166
- 崔志守(2014) 『日本漢字音과의 比較를 통해 본 韓國漢字音의 母胎에 관한 研究』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p.25-399
- 佐々木勇(2009) 『平安鎌倉時代に於ける日本漢音の研究-資料篇-』 汲古書院 pp.7-622
- 藤堂明保(1965) 『漢字의 語源研究-上古漢語의 單語家族의 研究-』 学灯社 pp.69-770
- 董同龢(1944) 『上古音韻表稿』 國立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 pp.11-44
- 董同龢·孔在錫역(1975) 『漢語音韻學』 汎學圖書 pp.291-308
- 麥耘·廉載雄역(2014) 「한어역사음운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장어 비교연구(상)」 『中國語論譯叢刊』 35 中國語論譯學會 pp.483-502
- _____ (2015) 「한어역사음운학의 영역으로 진입하고 있는 한장어 비교연구(하)」 『中國語論譯叢刊』 36 中國語論譯學會 pp.525-550
- 李方桂(1980) 『上古音研究』 商務印書館 pp.9-21
- 李方桂(1997) 「중국어 상고음」 『중국어문논역총간』 제1집, 경희대학교부설 비교문화연구소, pp.209-237
- 李方桂·전광진역(2003) 「중국어 상고음 연구(II)」 『口訣研究』 11 口訣學會 pp.331-390
- 李方桂·전광진역(2004) 「중국어 상고음 연구(II)」 『口訣研究』 12 口訣學會 pp.293-354
- 何九盈·신아사역(2017) 「상고 중국어 어두자음군」 『口訣研究』 38 口訣學會 pp.237-266
- Bernhard Karlgren(1954)·李敦柱 역(1985) 『中國語音韻學』 一志社 pp.122-266
- E. G. Pulleyblank(1984) *MIDDLE CHINESE: A study in historical phonology*,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Press pp.176-184
- William H. Baxter(1992)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 Mouton de Gruyter, pp.291-299
- W. South Coblin(1983) *A Handbook of Eastern Han Sound Glosses*, The Chinese University Press, pp.79-91
- 中国語方言字音データベース(<http://gattin.world.coccan.jp/fangyin.htm>) 검색일 2018. 5. 20
- 漢典(www.zdic.net) 검색일 2018. 5. 20.

〈 要 旨 〉

多音字における陽聲韻の互用に関する考察

本稿では、中古音の多音字の中で、陽聲韻が他の陰聲韻や入聲韻と互用する用例、又は異なる陽聲韻の間で互用する用例を分析し、OCの中でどのような音節構造の變化が起ったのかを考察した。その結果をまとめると、以下のようである。

1)陽聲が陰聲と互用したものは、喉内鼻音ŋが一番多く、その次が舌内鼻音nであり、脣内鼻音と陰聲韻との互用が一番少なかった。陽聲と陰聲との互用を通じて、CVC構造であるEOCのA語における語末鼻音が、CV構造であるMOCのB語ではu・i・∅に入れ替えられた。即ち、A[CaC]⇒B1[Cau・i・∅]の図式が成立する。

2)EOCのA語はCaC、又はC1C2aC1C2のような音節構造を成していた。EOCの C1C2aC1C2という音節構造が、B1ではC1a∅・u・iやC2a∅・u・iに開音節化する。従って、語頭の複數子音は再構しやすいが、語末の複數子音は再構するのが難しい。

3)A語とB語との言語接觸で形成されたMOCのAB語に、AB1(C)→AB2(Q・N)→AB3(t・k・n・ŋ)→AB4(p・t・k・m・n・ŋ)という別々の言語集團が存在していた。このような現象は、ACから現代にわたる中國語の語末子音の變化や現代における中國語の方言を通じても窺える。

4)EOCのA語は、CaCの音節構造よりC1C2aC1C2、又はC1C2C3aC1C2C3のような子音がもっと多く連続できる音節構造であった可能性が残る。このような音節構造は中國語とは全然異なる音節構造を持つ他の系統の言語が漢語の音韻と語彙の形成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たことを意味する。

5)EOCの音節構造を明確にするためには、中國周辺に分布するアルタイ語族の諸言語や古代韓國語の音韻體系及び音節構造に対する研究が必要であると考えられる。

論文分野：音韻論

キーワード：多音字、上古音、陽聲韻、互用、音節構造

■ 이경철(李京哲)

동국대학교 교수

kanjisee@naver.com

■ 投稿日：	2018년	8월	26일
■ 審査開始：	2018년	10월	15일
■ 審査完了：	2018년	11월	11일
■ 掲載確定：	2018년	11월	14일